

〈발표4〉

이혼한 여성 한부모의 어머니의 경험

김혜선(강원대)

김은하(부산가톨릭대)

I. 서론

이혼 후에 형성된 여성 한부모 가족의 사회복지적 개입 방향과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이혼한 여성 한부모의 어머니로서의 삶이 모성에 대한 생물학적 결정론이나 기능주의적 정의에 의한 것이 아니라 여성들의 실제적인 경험과 환경에 근거해서(이연정, 1994) 재조명될 필요가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내부자적 관점을 중요시 하는 Giorgi의 현상학적 분석방법을 사용하여 이혼으로 한부모 가족의 주양육자가 된 여성들을 직접 만나 그들의 체험을 통해 여성 한부모의 어머니 경험의 본질을 이해하고자 한다. 이를 위한 연구 질문은 “이혼한 여성 한부모가 체험한 어머니의 경험은 무엇인가?”이다.

II. 문헌 고찰

1. 이혼한 여성 한부모

이혼한 여성 한부모는 경제적, 사회적, 심리적인 영역 등에서 생활의 변화를 경험한다. 이혼한 여성 한부모는 남성 한부모보다 경제적인 어려움을 더 겪으며(옥선화 외, 2004), 자녀양육에서 도움을 필요로 하고 있다(김연옥 외, 2005). 또한 배우자가 있을 때와는 달리 부모 역할을 혼자 떠맡게 된 여성 한부모는 가사와 경제활동으로 절대적인 시간의 부족을 느끼기 때문에 이로 인한 자녀와의 심리적 갈등도 크고(정현숙·유계숙, 2001), 이로 인해 죄의식과 스트레스를 느끼며 자녀와의 관계에서 감정적이거나 일관된 태도를 나타내지 못하는 경향이 있다(박민형, 2005). 그리고 여성 한부모는 아버지의 자리를 대신하고 이를 부담해야 하는 역할 긴장과 갈등을 경험하게 되는데, 이로 인한 우울, 불안, 소외감 등의 정서적인 문제가 나타나기 쉽다(김승원 외, 2004).

2. 어머니 경험

핵가족안의 가정주부는 전통사회의 주부들에 비해 사회적으로 비중이 하락했다. 그리고 가족과 사회가 분리됨에 따라 가사와 양육은 여성이, 사회와 경제활동은 남성이 전적으로 담당함으로써 여성들은 재정적으로 남성에게 의존하게 되고 통제될 가능성이 더 높아졌다(조혜정, 1981). 이때부터 여성에게는 무조건적이고 희생적인 어머니라는 위치가 가장 확실한 존재의 의미로 자리 잡게 되었다(박혜란, 1987). 이러한 사회에서 여성들은 어머니란 자녀 양육의 일차적 책임을 가지고 있

고, 자녀가 어린 시기에는 가정에서 자녀를 양육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자신의 욕구보다는 자녀의 욕구를 우위에 두어야 한다는 모성이데올로기에 사로잡히게 되었다(김인지·이숙현, 2005). 즉, 여성들에게 있어서 사회적으로 기대되는 돌봄의 역할은 어머니를 신비하게 만듦과 동시에 어머니 역할을 변화시켰다(Glenn, 1987; 이숙현, 2005 재인용).

III. 연구방법

1. 연구 설계

Giorgi의 현상학적 방법은 현상을 경험한 대상자의 기술을 연구자의 학문적인 배경에 따라 학문적인 용어로의 변형을 통해 경험의 본질적 의미구조를 밝히는 것을 특징으로 한다.

2. 연구대상

	나이	자녀 성별(수)	직업	이혼연수	학력
연구참여자 1	34	딸(1)	사무직	5	대졸
연구참여자 2	42	아들(1), 딸(1)	가사간병인	8	고졸
연구참여자 3	36	딸(3)	아르바이트	7	고졸
연구참여자 4	37	아들(1)	아르바이트	9	고졸
연구참여자 5	39	딸(2)	사무직	8	대졸
연구참여자 6	46	아들(2)	가사간병인	8	고졸

3. 자료수집

자료 수집은 2006년 12월부터 2007년 4월까지 심층면담을 통해 이루어졌다.

4. 자료의 분석

자료는 면담 시 연구 참여자들의 동의를 얻어 녹음기로 녹음한 후에 연구자가 녹취 내용을 들으면서 직접 컴퓨터로 필사하여 디스켓에 저장, 인쇄하여 자료 분석을 실시하였다. 수집된 자료는 Giorgi (Giorgi, 2003, 신경림·장연집·박인숙·김미영·정승은, 2004)가 제시한 4단계 절차(전체 인식하기, 의미단위 구분하기, 학문적 용어로 변형하기, 구조로 통합하기)를 따라 분석하였다.

IV. 연구결과

1. 여성 한 부모가 체험한 어머니 경험에 대한 구성요소

1) 아내의 자리를 포기해 버림

느낌도 있었고 예상도 있었고, 근데 목격을 해도 남자들은 그렇대요. 아니라는 등 그런 식으로 남을 탓하는 거 있잖아요. (중략) 이렇게 달래 봐도 안되고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해봐도 안되고. 사람이 성격이 안 변한다고 하잖아요. 어떻게 그럴 수가 있나 이런 생각도 들고... 애를 보기 싫다 애를 보면 보기 싫다 그러는 거야(참여자 5)

저는 이혼에 대해 생각을 잘 안했어요. 이혼이라는 꼬리표를 달고 평생을 살아가야 하는데 내가 어떤 사회생활이 나 어떤 일을 하는데 걸림돌이 되지 않을까 내가 지금 아무 것도 가진 능력도 없고 5년을 살림만 하다가 내가 뭘 할 수 있을까 거기에 대한 불안감 때문에 정말 이혼하고 싶은 마음은 제가 더 굴뚝같았지만 (참여자 1)

처음에는 저도 그렇고, 저하고 이야기 했을 때는 아기도 그렇고 그랬는데, 저가 먼저 이혼해 달라는 식으로 하니 까. 나는 정신적으로 힘들었어요. 그 때 이혼도장을 찍는 순간에 너무나 행복했다고. (중략) 서류상 이혼이 뭐 나중에 이런 이런 문제가 생기고 그런 거 많잖아요. 그런 게 제대로 알고 했으면,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중략) 너무 허망하네요. 막상 닥치고 나니까 속은 굉장히 후련해요. 어쨌든 나중에 어쨌든 그 때 상황은 풀렸다는 생각이(참여자 5) 그냥 터지고 나니까 뭐 막막하더고.(중략) 뭐 생각할 겨를도 없이 그냥 내가 키워야 된다는 생각을 가진거죠. 막막하게 닥치면 어떻게 되겠지 하고(참여자 2)

말 꺼내기조차 처음부터 우리는 모자인데요. 이 말 자체가 주눅이 들어요. 당당하지가 못하고(참여자 4)

나도 이제 외지에서 살다보니깐 고향 오면 창피하잖아요, 근데 그거는 있어요. 창피한 거는 정말 누구 말대로 한 번만, 처음에 왔을 때 이게 그렇게 골이 아프다 했는데도 그게 조금만 세월이 지나다 보니까 묻혀진다는 거야 아무렇지도 않게 가니깐 그게 좋더라고요~ 그리고 고향은 아는 인맥들이 많으니깐 (참여자 3)

처음에는 너무 부정적이었고 스스로가 부정적인 생각을 갖고 나를 그렇게 내 자신을 취급을 했었는데 아니라는 생각이 주위에서 그렇게 바라봐 주시고 이혼하고 그쪽하고 관련된 사람들 만나도 아무렇지 않게 거기에 대해 더 이상 얘기하지 않고 사생활에 대해서는 아니까 이혼을 한 사실을 알고 지내고 일상적인 이야기, 진짜 편안하게 받아(참여자 1)

2) 경제적 책임을 혼자서 감당하기 어려움

당장 본인 입에서 그만 두겠다는 얘기가 나올 때까지 스스로 그만 두게끔 말을 자주 유도를 하더라고요. 근데 나는 지금 이거 아니면 못 먹고 산다고 매달리는 입장이거든요.(중략) 애들이 너무 어리다보니까 어디 식당에 가서 일을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리고 나이가 많으니깐 어디 사무실에 가서 일을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근데 아휴 (중략) 일주일 이상을 병원에 입원하고 반깁스를 하고 있어야 한데 내가 지금 그럴 입장이 아니거든요 여자하면 찢리는, 진짜 직장도 찢려야 되고 애들도 고만하고, 진짜 손목이 잘못 된다 하더라도 내가 지금 그만 둘 수 있는 입장이 못 돼요. 어떻게 할지 캅캅해요. 누가 좀 얘기를 해주면 내 좀 애들이 클 때까지 좀 일을 할 수 있게끔 좀만 해주면, 지푸라기라도 잡고 싶은 심정이예요. 정말로(참여자 2)

일을 할 때도 제가 학습지를 했는데 혹시나 애들 가르치다가 그것도 애를 가르치는 선생님이 아니예요? 인정은 못 받지만 만약 이혼을 했다는 게 걸림돌이 될까봐 들어갈 때 이야기를 했어요(참여자 1)

애들 데리고 먹고 살아야지 인제는 뭐 얼굴 철관 깔고 다니죠. 이제는 얼굴에 철관 깔았어요. 내 같은 경우도 친정이니깐 그니깐 친정집에서 다 갖다 먹는 거야 (중략) 이런 상황에서 생활비를 드린다거나 그런 것도 아니고 참 못할 짓도 많이 했는데 애를 키워주시는 게 너무나 감사하고 항상 죄송하고 그래요(참여자 1)

엄마가 창피한 게 어디 있나? 그냥 만들자, 만들자. 저는 창피해서 못 갔잖아. (중략) 그래 우리 엄마가 쫓아 다니면서 만들었어. 애가 어리다 보니 모자가정으로 해서 사는 게 낫다(참여자 3).

3) 혼자서 책임져야 하는 자녀 양육이 버거움

긴 시간 속에 결정을 한 게 한 생명이잖아요. 그래서 남자는 버리자. 아이를 택하자. (중략) 아이를 처음부터 양육을 내가 다. 그래도 제 자식을 내가 포기 안하고 내가 데리고 사는 건데(참여자 4)

조금이라도 엄마 마음을 안다면 이해를 해준다면, 알면서도 행동을 못한다는 거죠. 애가 알면서도, 개 나름대로 답답한 게 있기 때문에 나한테 못하는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애가 답답함을 풀어야 하는데 안 따라 주니까. 이렇게 이렇게 하라고 그러면 따라주면 되는데, 옆길로 새고 벗어나 버리니까. 어떻게 할 방법이 없어서 혼내줘 보기도 하고 했는데(참여자 4)

애들이 병신, 바보, 이런 거 엄청 여러 가지 욕도 많이 하고 그래요. 그러면 놀다가 그런 소리 듣고 올라와요. 와 갖고 엄마한테 얘길 해요.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애들은 벌써 다 도망갔어요. 그런 자기 나름대로 또 상처를 받는 거예요. 찢어져요, 마음이. 표현할 수가 없어요(중략) 화나니까 욕이라도 해주고 싶고, 어떻게 뭐랄까, 뭉게지는... 내 마음이 뭉게지는 것 같아요. (중략) 내가 어떤 때는 막 잡고 때리고 오라고 해. 너무 속이 상해가지고 (참여자 4)

급식비 면제가 딱 들어가니까 좀 애들한테 조금. 그니까 애가 작아져. 애가 학교에서 자신감이 없어지는 거야. (중략) 애들이 우리보고 “거지래요”.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야. 가슴이 얼마나 아픈지. (참여자 3)

공부는 뒷전이고, 집중력이 떨어지고, 내가 봐도 아니거든요. 그래서 선생님한테도 말씀 드렸어요. 아무리 우리가 말을 한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다. 그 아이 마음이, 우리 아들 마음이 열려야지만 자기가 고쳐 나간다는 거 깨달은 거죠. (중략) 아버지 외에는 찾아줄 게 없어요. 제가 판단했을 때는, 그러면 애가 좀 나아져서 말도 좀 잘하고 자기 의사표시를 똑바로 할 수 있지 않을까(참여자 4)

아빠를 용서해줘 그런 식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저는 도는 거예요. 너 그렇게 얘기 할거면 너 아빠한테 가서

살아라. 엄마는 내가 아무리 아빠가 좋다고 같이 살자고 해도 엄마는 같이 살 생각이 없고 너 가고 싶으면 너 보내겠다. 엄마는 너 때문에 같이 살 생각이 전혀 없다. 아주 못을 박았죠. 그러니까 이제 이야기를 안해요(참여자 1)

아직까지 우리나라에는 엄마 혼자 키워도 애들 아빠 성을 따라 가야 되니까 내 혼자 키워서 저것들이 나중에 커가지고 법이 바뀌지 않는 한 아빠 찾아가겠다고 하면 난 할말이 없는 거죠 그때는 내가 좀 억울하다는 생각이 들 것 같애(참여자 2)

4) 독립된 양육자로 정체감을 찾음

난 결혼하기 전엔 눈물이 없었어요. 생활이 그렇게 만들더라고 아직도 흘릴 눈물이 있나 가끔 이제 애들이 일찍 잘 때가 있잖아요 그럼 속상하면 엄마랑 앉아가지고 이 이야기 저런 이야기, 속상하지 속상하면 또 뭐 엄마한테 별안 털어 놓을 애기가 없으니까 하다보면 또 눈물 뚝뚝 흘리면 아직도 그렇고 흘릴 눈물이 그렇게 남았나 안 마르고 이러더라고(참여자 1)

지금은 나 혼자 이렇게 힘들게 키우는데, 내가 왜 힘들게 키워서 지네 아빠라는 이름을 가지고 애들 맘대로 만나고 이러면 나는 죽도록 고생하는데 그렇게 하면 용서가 안 될 것같더라고요. 내가 겹으로는 웃어도 얼마나 내가 마음은 그러는데, 진짜 애들 둘 데리고 살기가 얼마나 힘든데 내가 일인 몇 억을 해야 해요.(중략) 내가 그 역할을 다 하는데 아빠라는 이름으로 애들을(참여자 2)

살다보면 애들 키우면서 허전한거 애들 때문에 채워지는 부분하고... 혼자 채우는 부분이 또 틀리는 거야. 근데 참 저게 많이 커서 말 상대가 돼서 좋겠는데 한편으로는 좀 서글프기도 하더라고, 솔직한 말로 누가 옆에서 와도 차를 편하게 마시고 밥 먹고... 뭐 그 정도 선이 딱 좋아. 그럼 나도 그 사람한테 열심히 잘할 자신 있고 그 사람한테 잘하고 ~ 근데 그게 딱 넘어 서니깐 이게 오버가 되니깐 내가 딱 선이 그어지는 거야, 그러니깐 남자들이 힘들어해, 자기는 선을 넘으면 책임을 지면 다행인데, 그것도 아니죠. 왜냐하면 나만 데리고 갈라하고 그러니깐 나는 그건 싫다 이거지, 나는 옵션으로 셋 다 데려가라 하거든, 그게 싫음 나 만나지 말자 그래, 그러니깐 나 만나는 사람은 눈이 확 뒤집히는 거야. 내가 그랬잖아요, 어중간히 한쪽 만 뒤집히면...(참여자3)

그게 고비 고비 한고비, 자기가 마음을 중심을 어디다 두느냐가 많이 좌우가 되요. 그리고 나서 마음이 흐트러지면 안되요. 어떤 엄마들도 마찬가지지만, 힘들죠. 자기 마음 자체를 잡지 못하면 어느 누구 마음도 못 잡아줘요. 솔직히 내가 쓰러지는데 누가 누구 잡아줘요?(참여자 4)

굳이 어릴 때는 있잖아요, 나쁘게 이야기해 줄 필요도 없고, 내 말을 이해시킬 필요도 없어. 좀 더 크니깐, 자연스럽게 말을 하니 애들이 알아들어. 자기들이 알아듣지 못하면 아무리 이야기를 해도, 좀 알아듣는 나이가 되면 아무리 내가 좋게 얘기해도 옛날에 아빠가 잘못을 했구나 (참여자 3)

10년 후에는 나를 어디에서 받아줄 수 있는가 싶은 게, 또 올해부터는 요양제도가 실시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자격증을 따 봤거든요. 나도 어느 정도 애들 중학교 가고 이렇게 되면 남을 돕고 살 수 있는 정도는 되어야지. 이렇게 마냥 살 순 없잖아요(참여자 2)

V. 논의 및 결론

본 연구의 결과를 바탕으로 다음과 같이 이혼한 여성 한부모에 대한 개입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첫째, 이혼한 여성 한부모에 대한 사회복지 정책은 단순히 경제적 지원이라는 낡은 처방이 아닌 여성의 삶의 변화라는 측면이 적극 고려되어야 한다. 둘째, 사회복지실천 현장에서 사회복지사들, 사회복지 담당 공무원, 자원봉사자들, 그리고 다양한 수급 대상자 등이 양성평등과 민주주의 원리에 입각하여 가족 안에서 모성을 재해석하는 생각의 전환이 필요하다. 셋째, 사회복지실천 영역에서 이혼한 여성 한부모를 가족의 가장이나 아동의 주양육자로 강조하는 부모교육, 자활, 가족치료 등의 프로그램들을 수정할 필요가 있다. 넷째, 이혼한 여성 한부모들은 이혼한 후에도 자녀와 생활하는 과정에서 전 남편의 존재를 의식하면서 남편과 분리되지 못한 관계 채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남편과의 관계를 스스로 정립할 수 있는 개입 프로그램이 요구된다. 또한 이혼한 여성 한부모들이 자녀에 대한 지나친 기대나 의존에 빠져 자녀의 욕구보다는 자신의 욕구를 우선시 하지 않도록 개입해야 하며, 한편에서는 자녀들이 이혼한 후에도 부모간의 갈등 상황 속에 빠지지 않고 어머니를 온전히 자신의 주양육자로 받아들일 수 있도록 법적인 장치와 실천 프로그램이 필요하다.

참고문헌

- 김승권 · 양옥경 · 조애정 · 김유경 · 박세경 · 김미희. 2004. 『다양한 가족의 출현과 사회적 지원체계 구축방안』.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김연옥 · 유채영 · 이인정 · 최해경. 2005. 『가족복지론』. 서울: 나눔.
- 김인지 · 이숙현. 2005. “취학전 자녀를 둔 어머니의 모성 이데올로기와 부모 역할, 만족도”. 『한국가족관계학회지』 10(3): 1-25.
- 박민형. 2005. “한국 한부모 가족 정책의 문제점과 발전과제”. 이화여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박혜란. 1987. “성으로 본 여성의 실상-1980년대 단편소설을 중심으로”. 이화여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신경림 · 장연집 · 박인숙 · 김미영 · 정승은. 2004. 『현상학과 심리학 연구』. 서울: 현문사.
- 옥선화 · 최새은 · 권소영 · 강유진. 2004. “이혼한 여성 한부모 가족의 사회적 관계망 지원에 대한 탐색적 접근”. 『한국가정관리학회지』 22(1): 181-191.
- 이숙현. 2005. “여성과 돌봄: 모성과 부영의 여성화”. 『한국가족관계학회지』 10(2): 133-149.
- 이연정. 1994. “모성론에 관한 비판적 고찰”. 서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정현숙 · 유계숙. 2001. 『가족관계』. 서울: 학지사
- 조혜정. 1981. “전통적 경험세계와 여성”. 『아시아여성연구』 20: 81-111.
- Giorgi. 2003. “Giorgi의 현상학적 연구방법”. 2003년 동계 질적 연구방법 국제 학술대회 자료집. 서울: 한국 질적 연구 센터.